

사료작물 월동 후 재배지 관리 방법 제시

농진청, “초봄 사료작물 관리, 건조·습해 피해 예방이 핵심”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사료작물 생육이 본격 시작하는 시기를 맞아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 등 동계작물 관리 방법을 제시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월동 후 재배지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동계 사료작물은 이맘때 눌러주기(진압), 웃거름 주기, 배수로 정비 등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생산성이 높아진다.

국내 겨울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라이그라스는 뿌리가 땅속으로 내려가지 않고 흙의 표면으로 넓게 퍼지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겨울철 땅이 녹으면서 생긴 공간으로 뿌리가 들뜨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한파나 서릿발에 노출되면 들뜬 뿌리가 얼거나 마르는 피해(한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트랙터를 이용해

눌러주기(진압) 작업을 해야 한다. 월동 후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 사이 진압 작업을 해주면 봄철 건조 피해를 방지하고, 뿌리가 안정적인 퍼져나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봄철 진압 작업만으로도 사료작물의 생산성을 15%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

웃거름 주기도 사료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다. 3월 상순까지 웃거름을 주면 뿌리가 발달하고 생육이 촉진돼 가지벌이(분얼)가 증가하고 잡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이탈리아라이그라스의 경우, 헥타르(ha)당 요소 비료 220kg, 청보리와 호밀은

160kg이 적당하다. 다만 가을에 퇴비를 충분히 공급했거나 봄철에 가축분뇨를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 비료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겨울철 폭설이나 봄철 잦은 비에 대비해 배수로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청보리와 호밀은 습해에 약해 물에 잠기면 생육 불량 및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배수로 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상훈 조사료생산시스템과장은 “양질의 풀사료 생산은 생산비 절감 효과를 불러와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에도 직결된다”라며 “월동 후 집중적인 재배지 관리로 양질의 풀사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옥기기자

노란우산 3·3·3 프로모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누적가입 300만 달성 기념 행사 진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 누적가입자 3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3월 한 달간 ‘노란우산 3·3·3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0만 번째 노란우산 가입자와 3월 중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한 고객 300명을 추첨하여 10만원 주유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노란우산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이벤트 게시물을 공유한 응모자 300명을 추첨하여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경영 위기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 복리이자 및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 공제금의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가입자 수는 2007년 출범 당시 4,000명으로 시작해 △2017년 누적 100만 △2021년 200만 △2025년 300만 명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소기업·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노란우산에 가입했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셈이다.

누적가입자 300만 명 중 현재 재적가입자는 약 177만 명이다.

/김옥기기자

전은 JB 플랫폼, 3월 ‘OECD 국제금융주간 기념 금융교육’

JB금융그룹 전복은행(은행장 백종일) JB플랫폼(PLATFORM)에서는 OECD국제금융주간(GMW)을 맞아 ‘내돈의 주인공은 나!’라는 주제로 3월 한 달간 특별 금융교육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국제 금융주간을 기념해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개인 및 단체로 참여 가능하다.

디지털 금융 체험, 금융보안게임, 용돈지킴이 등 다양한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참가자에게는 JB플랫폼 특별 제작 굿즈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 제작 굿즈 소진 시에도 JB플랫폼 체험 및 JB굿즈 수령은 가능하며, 이벤트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복은행 금융에듀테인먼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복은행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금융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참가자들이 올바른 경제 가치관을 형성하고 금융지식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JB플랫폼은 프로그램 체험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과 오후 2회 차로 운영되며, 회차 당 15명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JB플랫폼 홈페이지 및 전복은행 사회공헌홍보부(063-250-7465, 7405)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바이오진흥원, 상반기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진흥원과 입주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 원장 이은미)은 4일 입주기업 28개사 대표 및 임직원들과 함께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중심의 창업기업 지원, 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의 GMP생산 및 품질분석 지원 등 ONE-STOP 지원체계로 탄탄한 보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개사의 신규 창업기업을 발굴 및 유치하여 현재 총 28개사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바이오진흥원 임직원과 입주기업 대표자들 간의 소통 및 교류의 시간을 갖고, 전년도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의 주요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오진흥원 입주기업은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멘토링, 제품고도화, 시장관로개척, 현장에로해결 지원 등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 116.5% 상승, 고용 106.3% 성장 신제품개발 22건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총 8건의 수상실적을 획득하였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발굴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수주한 특허약량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올해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에도 추가로 신규 사업을 수주하여 입주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 선출된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인 반다크브리온 박희선 대표는 “입주기업 간 브랜드 협업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입주기업의 상생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기업들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나누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 진흥원은 입주기업 임직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개공, 민간기업에 ‘디지털 기술나눔’ 행사

전북개발공사는 ESG 경영 실천과 민간협력을 위해 지난달 27일과 이달 4일,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디지털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사 2층 회의실에서 양일간 진행되었으며, 도내·외 IT기업이 참석해 기술이전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4차례 진행된 기술나눔 행사에서는 총 24개 기관이 참여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기술나눔에서는 AI(인공지능),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업무 자동화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전자문서 관련 부서 배부 △민원 자동 부서 배부 △전자문서 스캔핑 등 공사의 실제 운영 사례를 시연하고, 소프트웨어 개



발 과정과 함께 소스코드를 설명하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 및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사 관계자는 “ESG경영 실천을 위해 최신 디지털 기술을 개방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민간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디지털 혁신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협, 농촌 희망 장학금 지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달 28일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지점 3층 회의실에서 농업인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 생활지원과 농촌지역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차세대 리더가 되길 희망하는 ‘농촌 희망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 최승운 김제시조합운영협의회장, 김유현 김제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농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농협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전북지역 271명 농업인 자녀에 1억2,6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학습기회 확대 및 학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북농협은 기대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의 중학교 진학선물이 되어 기쁘다”며 “농협의 지원을 잊지 않고 농촌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인품을 갖추도록 키워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농촌생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들의 꿈을 위해 헌신하시는 농업인분들과 올바른 품행으로 성장한 학교생활을 실천하는 자녀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LH 전북, 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 5년 무이자할부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송영환)는 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해 파격적인 분양조건을 시행했다.

익산시 평화동에 소재한 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 공공분양주택은 3월말 준공 및 입주를 앞두고, 현재 전체 1,094호 중 772호가 남은 상황이다. 이번에 내놓은 분양조건은 할부금 5년 무이자와 년5%의 선납할인 조건이다.

예를들어, 전용 84㎡를 3억424만원에 계약할 경우, 계약 시 계약금 500만원

과 입주잔금 1억5천320만원을 납부하고, 할부금 1억4천608만원은 5년 후에 무이자로 납부하면 된다.

시중 대출금리를 고려할 때, 할부금 1억4천608만원에 대한 이자비용인 3천285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할부금 1억4천608만원을 미리 납부할 경우 시중 대출금리보다 높은 LH의 선납할인(5%)이 적용되어 3천650만원 만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 여유가 있는 계약자라면 고려해 볼만하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